10 2019년 8월 6일 화요일 마켓·부동산 마켓·부동산

디스플레이·2차 전지 등 미래 먹거리 '직격탄' 우려

|韓日||경제전쟁 전면전

LGD, 지난주에만 주가 14% 하락 생산 타격시 中기업에 시장 위협 2차전지 파우치, 日 의존도 100% 국내 기업 중 대체 가능성에 주목

일본 정부가 지난 2일 한국을 화이트 리스트(수출심사 간소화 대상)에서 배 제한다고 발표하면서 반도체업종에 이 어 일본 소재 수입 의존도가 높은 디스 플레이·2차 전지 등 IT 업종에 대한 우 려가 증폭되고 있다.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 외함에 따라 오는 28일부터 한국으로 들어오는 일본수출품목 1100여개에 대 한 수출 허가에 최장 90일이 소요된다.

◆디스플레이업종, 섀도마스크 등 타격

LG디스플레이·삼성디스플레이 등 디스플레이업종은 지난달 1일 발표한 핵심소재 3개 품목에도 스마트폰용 디 스플레이 핵심 소재인 플루오린 폴리이 미드가 포함된 데 이어 수출규제 품목 확대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대표 디스 플레이주인 LG디스플레이는 2분기 3687억원의 대규모 영업손실에 이어 3



삼성디스플레이 아산사업장 전경.

/삼성디스플레이

분기에도 적자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일본 악재에 대규모 해외 CB(전환사채) 발행까지 더해져 주가가 지난주에만 14%나 하락했다.

디스플레이 분야에서는 중소 OLED (유기발광다이오드) 생산에서 필수적 인 섀도마스크 분야에서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일본 다이니폰프린팅(DNP)과 토판프린팅 등 2개사가시장 100%를 점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섀도마스크는 OLED 유기물질을 증착시키는 소모성 핵심 부품으로, 주기적인 교체가 필요하기 때문에 공급이 지

연되면 OLED 생산 차질까지 이어질수 있다. 현재 웨이브일렉트로·APS홀딩스가 섀도마스크 개발을 마쳤거나 진행중이지만 아직 양산에 이르지는 못했다. 또 노광기·증착기·세척기 등 디스플레이 장비의 일본 수입 비중이 82.7%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장비분야에서도 타격이 예상된다.

김동원 KB증권 연구원은 "디스플레 이는 전공정 장비의 일본 의존도가 높은 편"이라며 "디스플레이 장비의 경우, 증 착기·노광기 등 일본업체가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장비가 있어 구매가 제한되면 일시적으로 투자 시점 및 규모 조절 가 능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관련 품목 생산 차질이 빚어질 경우, 최근 파이를 키워가고 있는 중국 기업에게 시장을 뺏길 수 있다는 우려 도커지고 있다.

반면일본 규제로 인한 디스플레이부품·장비 국산화에 대한 기대도 커지고 있다. 소현철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섀 도마스크 등 디스플레이 소재 국산화에 주목하고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로 인해 국내 IT 소재업체에 대한 밸류에이 션 리레이팅이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그는 또한 "일본 캐논과 니콘이 독점하 던 디스플레이 노광기는 디스플레이 공 급과잉에 따른 투자 축소로 1년 동안 미 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전망했다.

◆2차 전지주, 수출 규제로 타격 우려

일본의 수출 규제로 2차 전지용 소재 등이 수입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삼성SD I·LG화학·SK이노베이션 등 반도체를 이을 유망업종으로 꼽히는 배터리업체도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현재 L G화학·S K 이노베이션은 리튬 폴리머 2차전지에 들어가는 파우치를 일본 DNP·쇼와덴코에서 100% 공급받 고 있다. 또 전기차 리튬이온 배터리는 양극재, 음극재, 전해액, 분리막 등 소재가 핵심을 이루는데 도레이, 아사히카세이 등 일본업체의 점유율이 높은 분리막 수급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양극·음극재의 일본 수출 비중이 15%를 밑도는 데 반해, 분리막의 일본 수입 비중은 83%에 달하기 때문이다. 강성 진 KB증권연구원은 "국내 배터리 공급업체들은 파우치필름,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등 핵심 부품을 일본에서 수입하는 상황"이라며 "친환경차 시장에서도 일본 수출 규제에 따른 일시적인 영향이 나타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증권가 전문가들은 국내 기업 중 SK 이노베이션이 자회사인 SK 아이이테크 놀로지를 통해 고품질 분리막을 생산하 며 일본업체들과 경쟁하고 있어 대체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이동욱 키움 증권 연구원은 "일본 비중이 83%에 육 박하는 분리막의 경우, 최근 SK이노베 이션의 공격적인 생산능력 확대 및 중 국업체의 증설로 수출 규제 적용이 큰 의미가 없을 것"이라며 "일본의 수출규 제 이후 공급 안정성을 높이려는 수요 자들은 국내 화학업체의 소재 사용 비 중을 늘릴 수 있다"고 전망했다.

/채윤정 기자 echo@metroseoul.co.kr

√충권 <u>다이제스트</u>

신규고객 급리 Up&Up! KB able 발행어음 적립식 특판 출시

KB증권 연 5% 'KB able 발행어음'

KB증권은 신규고객을 대상으로 연5%(세전) 월적립식 'KB 애이블(able) 발행어음' 특판 상품을 300억원 한도로 출시했다. 월적립식 발행어음의 월 납입 금액은 10만원에서 50만원(연간 최대 600만원) 범위 내에서 1만원 단위로 선택할 수 있다. 납입기간은 12개월이다. 만기 이전 중도 해지 시 8개월 미만 납입고객에게는 중도해지수수료가 부과된다. 가입 대상은 KB증권 발행어음 출시일인 6월 3일 이후 신규고객이다. 더 많은 고객에게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지난 특판에 가입했던 고객은 가입대상에서 제외된다. /손업지기자

신한금융투자

ELS청약 24시간으로 확대

신한금융투자는 온라인 ELS와 DL S 청약가능시간을 주말포함 24시간으로 확대한다. 기존 온라인 ELS의 청약시간은 주말을 제외한 영업일 오전 8시에서 오후 10시까지였으나 이번 개편을통해주말을포함한 24시간(전산작업시간 제외) 온라인 ELS 청약이 가능하게됐다. 이번 청약시간 확대는 최소가입금액이 10만원인 온라인 ELS 소액투자에 관심있는투자자의 편의를 증진하고 온라인 ELS 저변확대에 도움이될것으로 예상된다. /김유진 기자 ujin6326@

메리츠證, 분기 사상 최대순익… 1459억 '깜짝 실적'

2분기 순익 1459억, 전년比 33.8% **↑** 사옥매각 차익 200억 실적상승 견인

메리츠종금증권이 6개 분기 연속 1000억원대 순이익을 달성했다. 채권금 리 하락, 파생결합증권 운용손익이 개선 되면서 시장 기대치를 상회하는 성적을 낸 것으로 보인다. 올해도 사상 최대 실 적을 달성할 수 있을 지 기대가 모인다.

메리츠종금증권은 2분기 연결기준 순이익이 1459억원을 기록했다고 5일 밝혔다. 전년 동기 대비 33.8% 증가했고, 지난 1분기 순익보다 3.2% 늘었다. 사상 최대 분기실적인 1분기 순익을 넘 어선 성과다.

2분기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보다 31.5% 늘어난 1669억원으로 집계됐다.



메리츠종금증권 부회장

9개 분기 연속 1000억원대 영 업이익을 달성 했다.

파생결합증권 발행이 큰 폭으 로 늘면서 운용 손익이 개선됐 다. 지난 2분기 말 기준 파생결

합증권(ELS DLS) 발행잔액은 3조5483 억원으로 전분기보다 27.5% 늘었다.

약 200억원 수준으로 알려진 사옥매각 차익도 이익에 반영되면서 실적 상승을 이끌었다.

메리츠종금증권 관계자는 "기업금융 (IB)·홀세일(Wholesale)·리테일 등의 사업부가 고르게 성장했으며 사옥 매각 차익이 일회성 이익으로 반영됐다"며 "사옥매각과 통합 이전으로 분산됐던 증권과 캐피탈의 인력이 한 공간에 모 여 유기적 융합을 이뤄냈다"고 밝혔다.

상반기 순이익은 2872억원으로 집계 됐다. 지난해 보다 35.2% 늘어난 수준 으로 반기 기준 역대 최고 실적이다. 영 업이익 역시 3328억원으로 전년 보다 27.0% 늘었다.

수익성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상반기 실적을 반영한 연결기준 연환산 자기자본이익률(ROE)은 16.2%로 나타났다. 자기자본 3조원대 증권사가 6년 연속 두자릿수 ROE를 기록한 것은 최초다.

순이익이 늘어나면서 자기자본 역시

/자료=각 사

건설사

대우건설

우미건설

현대건설

대림산업

롯데건설

꾸준히 증가추세다. 상반기 기준 자본 총계(자기자본)는 3조6308억원으로 작년 말(3조 4731억원)보다 1577억원 늘었다. 특히 2010년 최희문 메리츠종금 증권 부회장이 대표가 된 후 자기자본 규모는 업계 20위권에서 6위권으로 급성장했다.

정태준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메리츠 종금증권은 투자은행(IB)딜 중에서도 빛(Debt) 투자에 집중함에 따라 순영업 수익 내 이자손익의 비중이 타사 대비 압도적으로 높아 타사에서 ROE를 끌어 내리고 있는 순수수료이익의 둔화나 트 레이딩 및 상품손익의 변동성 확대와 같 은 문제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다"면서 올해도 사상최고 실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손염지 기자 sonumji301@

통일로 따라 서울 서북부 부동산 '들썩'

홍제동·녹번동, 고양 삼송 등 광화문 등 도심 접근성 뛰어나 하반기 재건축 등 분양 잇따라

서울 도심과 경기 서북부를 잇는 통일 로를 따라 부동산시장이 들썩이고 있다.

통일로는 서울역에서 통일대교까지 서울 수도권 서북지역을 관통하는 총 길이 47.6km 간선도로다. 최근 통일로 를 따라 서대문구 홍제동과 은평구 녹 번동·불광동, 고양 삼송 등이 신주거타 운으로 탈바꿈하고 있다. 통일로변 아 파트는 자동차뿐만 아니라 지하철 3호 선을 이용한 광화문이나 강남 등 도심 접근성이 뛰어나다. 〈통일로 라인 주요 분양단지〉

사업명 가구수 전용면적 시기 8월 서대문 푸르지오 센트럴파크 832 34~114m² 9월 북삼송 우미린(가칭, 단독주택) 527 미정 홍은2구역 힐스테이트 11월 625 59~84m² 12월 480 홍은1구역 e편한세상 40~94m² 하반기 녹번역 e편한세상 캐슬 2차 65~152m²

특히 최근 국토부가 고양 창릉을 3기 신도시로 지정하면서 통일로에 BRT 신 설을 예고한데 이어 서울~문산간 고속 도로가 2020년 개통한다. 통일로변 대 표적인 아파트는 '경희궁 자이'다. 전용 면적 84㎡ 기준으로 강북에서는 처음으 로 '10억원 시대'를 연 아파트다. 경희 궁 자이에 이어 통일로를 따라 들어선 무악재권역, 홍제권역, 녹번권역 아파 트도 10억원대를 바라보고 있다.

올해 하반기 통일로 주변에서 아파트, 단독주택 등 분양이 잇따른다. 대우건설은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제1주택재건축사업인 '서대문푸르지오센트럴파크' 34~114㎡ 832가구 중 320가구를이달일반분양한다. 이 단지는 3호선무

악재역초역세권 아파트다. 홍은사거리 에서 내부순환도로를 통해 상암DMC 등으로 진입도 수월하다. 단지 옆 안산 초교가 위치해 도보로 통학 가능하다. 단지 뒤로 안산이 위치해 있다.

대림산업과 롯데건설은 서울 은평구 응암동에서 응암2주택재개발 단지 '녹 번역 e편한세상 캐슬 2차' 65~152㎡, 128가구 중 118가구를 하반기 일반 분 양한다. 지하철 3호선 녹번역이 가까우 며 구기터널, 내부순환도로가 인근에 위치해 있다.

대림산업은 서대문구 홍은동에서 홍 은1구역을 재건축해 480가구를 12월 분 양한다. 녹번역과 홍제역을 이용할 수 있 으며 통일로와 내부순환도로가 인접해 있다.

/이규성 기자 peace@